

해외에너지 정책동향



일본, 가정부문의 탄소배출권 기업에 판매하는 제도 검토

- 일본 경제산업성과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(JEITA) 등 전기관련 4개 단체는 일반 가정에서 감축한 CO₂를 기업에 배출권으로 판매하는 제도의 검토를 시작함.
 - 에너지절약 성능이 뛰어난 가전제품의 이용으로 인해 감축한 CO₂의 양을 가정이 대기업에 판매하게 되면, 가정은 에너지절약으로 감축한 CO₂의 양만큼 수입이 발생하고 대기업은 배출권 구매로 CO₂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.
- 탄소배출권의 판매가격은 CO₂감축량 톤당 약 1천 엔으로 책정하며, 가전제품 1대의 CO₂감축량은 연간 0.2~0.3톤으로 추정함. 이를 가전제품의 평균 사용기간인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전제품 1대당 배출권의 가격은 2천~3천 엔이 됨.
 - 따라서 에너지절약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, 2천~3천 엔을 미리 할인해주는 제도가 검토되고 있음.
- 경제산업성과 전기관련 단체에서는 '13년 동 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.
 - 경제산업성은 금년 4월 이후,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가전제품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조사할 예정임.
 - 이 전력 사용량은 지역과 세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는 동시에, 가전제품의 평균 사용기간(10년)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.

(朝日新聞, 2011.1.9)

미쓰비시중공업, 미국에서 화력발전설비 수주

-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 전력회사 도미니온 산하 Virginia Electric and Power Company(VEPCO)로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복합 화력발전설비를 수주했다고 1월 18일 발표함.
 - 동 사는 수주금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10십억 엔 이상

이 될 것으로 추정됨.

- 미국에서는 셰일가스의 생산 본격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- 동 사는 이번에 VEPCO로부터 수주한 설비는 가스터빈에서 발전한 후 발생된 폐열로 증기를 만들어 증기 터빈에서 재발전하는 고효율의 Gas Turbine Combined Cycle(GTCC)임.
 - 동 화력발전 설비는 가스터빈 3기, 증기터빈 1기, 발전기로 구성되며, 총 발전능력은 1.3백만kW임. '14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임.
 - GTCC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CO₂배출량이 적음. VEPCO는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GTCC로 전환할 예정임.

(時事通信, 2011.1.18)

브라질 대통령, 녹색혁명 강화 약속

- Dilma Rousseff 브라질 신임 대통령은 1월 1일 취임사에서 브라질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시화하는 남미 최초의 명실상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함.
 - Rousseff 대통령은 Lula da Silva 전임 대통령이 채택했던 많은 환경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임.
 - 또한 Rousseff는 바이오매스, 풍력, 태양에너지 뿐만 아니라 에탄올, 수력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적극 장려할 것이며, 지속적으로 자연보존지역 및 산림을 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언급함.
 - 신임 대통령은 상기 정책들이 세계 기후변화협상에서 브라질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, UN 협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.

- 또한 브라질은 고유한 천연자원과 아직 미개발된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하고,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힘.

(BusinessGreen, 2011.1.4)

중국, 에너지집약산업 수출관련 세금환급 일부 폐지·축소

- 중국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일부 에너지집약산업의 수출관련 세금환급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.
 -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, 재정부, 상무부가 고무, 비철금속, 철강, 건축자재 등 수출 품목에 대해 세금환급 규모의 축소방안을 검토하고 있음.
 - 관계자에 의하면, 전반적인 축소 규모는 크지 않지만, 철강, 건축자재 분야의 제품은 환급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함.
 - 정부는 '11년 중국의 전반적인 수출 동향을 검토하고, 지방 정부의 견해를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금체계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최종 시책은 발표하지 않음.

(Reuters, 2011.1.24)

중국, 에너지절약 산업 급성장

- 중국은 에너지협회 에너지절약서비스산업위원회의 譚樹忠 부주임에 따르면 중국 에너지절약 산업의 규모는 지난 5년 동안 현격하게 증대되었음.
- 중국의 에너지절약 산업은 제11차 5개년 계획('06~'10년)기간 동안 에너지절약서비스산업위원회에 가입한 회원·기업이 89개에서 560개로 증가하였으며, 에너지절약서비스 관련 기업이 76개에서 782개로 증가함.
 - 또한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설립된 에너지절약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소는 87개에 이르렀으며, 에너지절약 기술 특허는 1,582건에 달함.
 - 제12차 5개년 계획('11~'15년)기간 동안 중국의 에너지절약 서비스 회사는 현재의 3배가 넘는 2,500개로 증가할 것이며, 고용 규모도 1백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함. 이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300십 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.

- 특히 에너지절약 연구개발, 혁신, 에너지절약 제품생산, 디자인, 컨설팅 등 관련 사업의 발전이 예상됨.

(Sankeibiz.jp, 2011.2.5)

미국, 상업용 빌딩 에너지효율 20% 개선 목표

-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동안 상업용 빌딩의 에너지효율을 20% 향상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음.
 - Better Building Initiative를 통해 상업용 빌딩의 보수에 대한 세제 혜택, 지급보증 프로그램 그리고 빌딩 효율기준 간소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임.
 - 현재 상업용 빌딩은 미국 전체 에너지수요의 약 20%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증진을 통해 매년 약 \$40십 억의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음.
 - 상업용 빌딩의 에너지효율 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Bill Clinton 전대통령과 GE의 CEO인 Jeffrey Immelt가 민간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임.

(Energy Efficiency News, 2011.2.4)

그루지아-카타르, 에너지협력 협정 체결추진

- 그루지아와 카타르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다수의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임.
 - 그루지아 대표단은 2월 20~21일 카타르를 방문하여 이중과세 방지와 수력발전 협력에 대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그루지아 정부가 밝힘.
 - 그루지아의 Mikheil Saakashvili 대통령은 '08년 8월 러시아와의 전쟁과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'09년에 중동에 협력을 요청하였음. Saakashvili 대통령은 UAE로부터 \$1십억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카타르로부터 대규모 투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함.
 - 카타르는 그루지아의 수력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.

(Bloomberg, 2011.2.14)